

# M-러닝을 활용한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대한 연구

김 혜 정  
(국민대학교)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공손 영어 표현 학습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담화 능력 외에도 사회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떠한 대화 상황에 직면했는지, 대화의 주제나 목적 등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맞는 적합한 표현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가 화자보다 높거나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낮을 경우 한국인 화자는 공손한 표현을 구사하게 된다. 한국어는 언어 자체적으로 경어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영어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영어의 공손 표현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손 언어 학습에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학습 교재로는 영국의 시대극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를 이용하였는데 이 드라마는 귀족들의 삶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공손 표현을 학습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모바일 활용을 통한 공손 영어 학습의 효율성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실험반과 일반적인 팀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통제반을 설정하였다. 두 반의 공손 언어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의 평가가 시행되었고 개방형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평가 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은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모바일이 수업 후 활동으로 사용하기에 효율적인 학습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공손 표현을 우아하거나 고급스러운 언어 형식으로 인지하거나 실용적 표현과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대극

을 이용하여 공손 언어를 교수할 경우 교수자들은 현대 영어와의 접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M-러닝, 공손한 표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손 언어, 시대극

## 1. 서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 형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상대에 따라 적절한 발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 상대방과의 친밀성의 정도, 대화의 내용 등에 따라 알맞은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언어는 자체적으로 공손 어법이 발달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상대방이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공손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줄 알지만 이것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하는 존대의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대화를 지속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손 표현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공손 언어에 대한 많은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추세인데 공손 전략에 대한 연구나 비교문화 간 공손의 차이, EFL 상황에서의 공손 학습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Hahn(2010)은 우리나라 영어 교재에 어떠한 종류의 공손 전략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화행들이 교재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손 전략들을 교실 수업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현효(2015)는 한국 드라마와 영어권 영화의 대화를 분석하여 성별에 따른 공손 표현을 비교 연구하였고 장은숙과 윤웅진(2012)은 초등영어 교육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손성 학습의 결여를 지적하며 교과 과정에 공손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영어 담화에 나타난 공손성(한천영, 2008)에 대한 연구나 구어체에 나타나는 공손성을 표시하는 표식어에 대한 연구(Jana, 2008) 등 공손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주제는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공손 기능과 특정 연구 자료에 나타난 공손성, 공손 전략의 실현 양상이나 특정 언어의 공손 표현

또는 교차 문화 간 공손 사용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실질적인 공손 언어 학습의 교육학적 방법이나 실질적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 공손성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뿐만 아니라 공손 언어 학습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학습시키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공손성의 기능이나 실현 양상을 자각하는 것과 실제 교실 현장에서 공손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손 언어의 학습에 요즈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외국어로서 공손 언어 교수하기(Bou-Franch & Garcés-Conéjos, 2003)나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한 공손성 자각의 필요성(O'Sullivan, 2008)이 제시된 바 있지만 컴퓨터나 모바일과 같은 최신 기기의 사용을 접목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공손한 영어 표현의 학습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손 언어와 모바일 러닝에 대한 문헌을 조사한 후 실험을 통해 영어 공손 표현 학습을 위한 모바일 러닝의 효율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 조사

### 1. 공손 언어

Lakeoff(1973)은 공손함은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발달시킨 시스템이라 정의하였다. Brown(2005)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공손함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언어적 중정성은 화자의 발화에 명시적으로나 암시적 형태로 사용되어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를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연결하여 대화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전달 매개변수로서 사용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이다” (한천영, 2008: 570). 이러한 정의는 대화 참여자간의 사회적 관계와 주어진 대화에서 사용되

는 언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자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체면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달라진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와 언어 간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언어적 공손함(linguistic politeness)이란 화자가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청자의 기분과 체면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적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전략이라 설명할 수 있다(Maha, 2014).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요청, 거절, 부탁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공손 표현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Hahn(2009)은 요청할 경우 사용하는 공손 표현을 조사하였고 한국인 학습자들은 *Could I miss the class?* 같은 질문 형식과 *I can't come to the class*와 같은 서술문의 형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문문 형식으로 요청할 경우 *Could I-?* 형식의 1인칭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요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을 취하는 것이므로 청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1인칭 사용보다는 *would it be all right with you?* 와 같은 형식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간의 문화 간 차이에서 기인하므로 공손 표현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문화적 차이를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교 문화 간 공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한 편인데, Kiyomi와 Etsuko(2012)는 영어 원어민 교사와 일본어 원어민 교사가 공손함과 공손 표현을 가르치는 방식간의 차이를 비교 조사하였고, 일본 원어민 교사들은 공손 용법에 대한 자각력이 높았으며 언어적 구조를 가르칠 때 공손 표현을 명시적으로 교수하였다. 반면 영어 원어민 화자 교사들은 공손 표현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공손 표현에 대한 명시적 교수 보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들이 명시적 교수를 통해 공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현호(2015)는 한국어와 영어 성별어(genderlect)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한국어 드라마(올랄라 부부)와 영어권 영화(*Mrs. Doubtfire*)의 대사를 분석하여 여성어의 경어법을 조사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여성 발화는 공통적으로 어휘 선택과 억양에서 성별어적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한국어 여성발화는 공손 표현에서 아

주 높임 단계인 ‘합쇼체’ 보다는 ‘해요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여성 발화의 공손성의 특징과 한국어가 갖는 개별 언어의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교실에서의 공손 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장은숙과 윤용진(2012)은 초등영어 교과서에 실린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분석한 결과 공손성 표현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적극적 공손성 표현과 소극적 공손성 표현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권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초등 영어 수업 관찰 결과 학생들은 공손성 표현을 기계적 연습의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공손성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접적 요구를 하는 소극적 공손성을 교실 수업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외국인 화자의 관점에서 한국어 공손 표현의 학습에 대해 Byon(2007)은 공손 언어를 연습하기 위한 구체적 수업 활동을 언급하였으며 텔레비전 토크쇼, 드라마, 뉴스, 광고 등과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였다.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공손한 표현을 교수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옳은 표현으로 변형하여 빈칸 채우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실에서의 공손 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 중 요즘에 많은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수업 도구로 활용한 사례가 풍부하지 않다. 따라서 공손 언어 학습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접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수업 활용의 측면에서 연구의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 2. 모바일 학습(M-learning)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언어학습(MALL: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의 개념은 모바일이 자연스레 외국어 학습을 위한 편리한 기기로 인식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또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번성을 가져왔다. 모바일 학습의 기본 개념으로 기술의 이동성, 학습자의 이동성과 학습의 이동성이 제시된 것을 보면(El-Hussein & Cronje, 2010), 이것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매우 실질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모바일을 활용한 학습은 이동의 편의성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교실 내뿐만 아니라 교실 외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모바일 폰의 사용은 언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앱의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그 연구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언어 학습을 위한 모바일 앱의 출현과 그에 따른 모바일 개념에 대한 재정립(Hoven & Palalas, 2011; Johns, 2011), 모바일 앱을 활용한 언어 학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찰(Kukulaska-Hulme, 2006), 이것에 대한 EFL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Hsua, 2013)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언어 학습과 관련된 연구로써 어휘 활동을 위한 모바일 사용에 대한 연구(Agca & Özdemir, 2013; Lu, 2008; Stockwell, 2010), 모바일 학습과 영어 듣기 이해력 향상에 관한 연구(Azar & Nasiri, 2014; Kim, 2013)와 모바일 사용이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율성을 증명한 연구(Chen & Hsu, 2008; Kim, 2014; Lin, 2014) 등이 있다.

모바일 앱과 언어 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Sandberg, Maris 그리고 Geus(2011)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앱의 사용이 초등학생들의 학습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Agca와 Özdemir(2013) 또한 4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그들은 성취도 테스트 형태의 사전, 사후 테스트를 통해 모바일 학습이 대학생들의 어휘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함을 증명하였다. Kim(2011)은 어휘 학습에 미치는 모바일 언어의 효과를 연구하였고 SM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어휘 학습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Yang(2012)은 서로 다른 유형의 영어 교수학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하였고 대부분의 모바일 앱이 어휘 학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휘 학습을 위해 다소 단순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모바일 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Norbrook와 Scott(2003)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학습은 모바일 기구의

편리한 이동성과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Azar와 Nasiri(2014)는 70명의 EFL 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학습과 듣기 이해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들은 모바일 학습이 듣기 이해력 증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듣기 기술을 학습하는데도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Kim(2014)은 독해 이해력 향상에 모바일 폰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실험반 학습자들에게 매주 수업 외 활동으로 모바일 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독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 실험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모바일 폰의 사용이 영어 학습에 유용하고 유익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모바일 폰이 효율적인 학습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모바일 앱의 학습 도구 활용성에 대해 조세경(2009)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학습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스타일 학습전략에 따라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써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p. 222).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zar & Nasiri, 2014). 모바일을 활용한 듣기 활동은 듣기 속도를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든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 모바일 학습의 현황과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그리고 이를 활용한 언어 학습과의 연계성을 고찰해 보았고 이를 통해 공손한 언어 학습을 위해 모바일 학습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6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업 소개와 사전 테스트를 실시한 첫째 날과 두 번의 테스트를 실시한 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3주 동안 실시되었다. 서울 소재 4년제 여자 대학교에서 교

양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멀티 영상을 활용한 교양 영어 수업으로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국어국문, 문예창작, 일본어과, 경영학과, 사회 복지학과, 응용화학, 정보 통계학과, 회화과, 관현악과, 큐레이터과 등 다양한 전공의 여대생들이 수강하였다.

이 수업을 수강한 세 개 반 중 임의적으로 두 개 반을 선정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설정하였다. 실험반은 38명, 통제반은 41명으로 구성되었다. 두 개 반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수업 시작 첫째 주에 기존 토익에서 문제를 활용한 35문항 사전 테스트와 영어 학습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테스트 결과 실험반과 통제반의 평균은 각각 27.736점과 26.085점이 나왔으나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확률  $p < .05$  수준에서 이 두 집단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585$ ,  $p=1.24$ ). 또한 주관식 형식의 설문 조사에서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거나 1년 이상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 2명(모두 통제반; 미국, 뉴질랜드)은 처음부터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영어 학습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기타의 문항을 제시하고 관심의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서 매기기를 학습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이 문항을 순위별로 정리했을 경우 말하기, 어휘, 듣기, 읽기 및 쓰기, 문법 순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두 반 연구 참여자들 모두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손한 영어 표현에 대한 학습을 따로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반 연구 참여자들 모두 따로 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 2. 연구 교재 및 모바일 앱

본 연구의 교재는 영국의 국민드라마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로 귀족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 산재해 있는 드라마 중 하나이다. 공손한 영어 표현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교재라 판단된다. 2010년 시즌 1을 시작해서 2015년 시즌 6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드라마로 영국뿐만 아니라 미



국에서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이다.

크로울리(Crawley)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영국 귀족들과 그들에게 예측된 하인들 및 주변 지인들의 삶을 소소하게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1912년을 배경으로 시작해서 제 1차 세계대전이나 전화기의 발명과 같은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변해가는 삶의 가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 귀족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공손한 언어를 위한 학습 교재로는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운튼 애비』 시즌 1을 활용하였으며 2주에 걸쳐 에피소드 한 편씩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바일 앱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네이버 밴드(Naver Band)이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으며 밴드 참여자들 간의 단체 대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반의 학습 후 활동으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였다. 교수자는 수업에 관련된 영상 속 대화를 녹음 파일로 변환하여 매주 공지사항으로 업로드 하였고 빈칸 채우기 활동과 더불어 대화 속에서 사용된 공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대한 답을 단체 방에서 함께 토론하며 답을 올리도록 하거나 또는 학교 홈페이지 강의 사이트에 조별로 답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였다. 매 주 한번 씩 수업 후 활동이 공지사항에 제시되고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학생에 대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였다.

### 3. 수업 절차

본 연구는 학습 전 활동, 본격적인 학습 활동, 학습 후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실험반의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학습 전 활동에서 교수자는 지난 수업 내용이 정리된 PPT 파일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드라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했던 공손 표현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네이버 밴드에 올라가 있는 빈칸 채우기 활동의 정답을 제시하고 드라마 상황과 그 상황에서 사용된 공손한 언어와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학습 활동에서는 먼저 학습자들이 그날 학습할 장면을 자막과 함께 시청하도록 하였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시청한 후 학습자들에게

팀별 토론을 통해 내용과 인물들 간의 관계나 발화 의도 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주어진 대화에서 사용된 공손한 표현을 이중 번역 활동을 통해 자각하고 그 표현과 관련된 공손 전략을 학습하였다. 공손 표현을 실질적으로 익히기 위해 학습자들은 팀별로 역할극을 수행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각자 맡은 등장인물의 발화 의도를 자각하고 등장인물들이 사용한 억양이나 몸짓 등을 연습하여 좀 더 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후 각 팀들은 역할극 연습한 부분을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그 파일을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활동에서 교수자는 그날 학습한 공손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PPT 파일로 제시하고 드라마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수업 종결 후 교수자는 학습 장면과 관련하여 빈칸 채우기나 비판적 사고 키우기, 이중번역하기 등의 활동을 네이버 밴드 공지 사항에 업로드 하였다. 이를 위해 드라마 장면과 관련된 음성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공하였다.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등장인물들이 사용한 공손한 표현 듣고 빈칸 채우기, 짧은 동영상 장면을 보고 등장인물들이 상황 상 공손 발화를 한 이유 생각해 보기, 드라마 한 장면의 대사를 우리말로 제시한 후 그동안 학습했던 공손한 표현을 활용하여 영어로 작문해 보기, 또는 반대로 공손 영어 표현을 제시하고 우리말로 번역해 보기 등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그 다음 수업에 들어오기 전까지 네이버 밴드에 공지되어 있는 수업 후 활동을 완성하거나 팀별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통제 집단의 수업 절차를 살펴보면, 학습 전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간단한 5문항 퀴즈나 교수자의 정리된 PPT 파일을 통해 지난 수업에서 학습했던 공손한 표현을 상기하였다. 본격적인 활동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자막과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고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이중 번역하기 활동을 통해 공손한 표현을 자각하고, 팀별 토론을 통해 특정한 공손 전략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후 학습자들은 그날 학습한 장면에서 제시된 공손한 표현을 익히기 위해 역할극을 수행하였고 충분한 연습 후 팀별 발표 시간을 가졌다. 최대한의 적극적인 연습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하는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수업 후 활동으로 실험 집단이 네이버 밴드로 수행

했던 활동을 통해 집단에서는 교실 수업 시간 내에 팀별로 시행하였다. 주어진 장면을 보거나 녹음된 내용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채운다거나, 교수가 제시하는 한국어로 번역된 대사 글을 보고 영어로 옮겨보거나 반대로 우리말로 번역해 보기, 등장인물이 왜 저런 공손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토론해 보도록 하였다. 이상 두 반의 수업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수업 절차

수업절차	실험반	통제반
학습 전 활동	공손 표현 상기하기 네이버 밴드에 올라간 질문 문항 답 확인하기	공손 표현 상기하기 내용 파악하기
본격학습 활동	자막을 활용한 영화 시청 공손한 표현 자각하기 공손 전략 파악하기 역할극: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자막을 활용한 영화 시청 공손한 표현 자각하기 공손 전략 파악하기 역할극: 수업 내 팀별 발표
학습 후 활동	네이버 밴드 - 듣고 빈칸 채우기 - 이중 번역하기 - 비판적 사고 키우기	교실 내 팀별 활동 - 듣고 빈칸 채우기 - 이중 번역하기 - 토론하기

#### 4. 평가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공손 영어 표현의 학습 가능성과 모바일 앱의 학습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두 번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공손 영어 표현의 내재화에 모바일 앱이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모바일 앱 활동에 관한 진솔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의 평가 중 1차 평가는 수업 시작 후 8주차에 이루어졌으며 2차 평가는 마지막 수업 전인 15주 차에 실시되었다. 평가 문항은 모두 35문항이며 모든 문항의 표현은 공손한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되었다.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답 채우기, 문맥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 고르기, 주어진 한글 해석에 맞는 영어 표현 쓰기, 문맥과 함께 주어진 영어 표현을 적합한 우리말로 번역하기 등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의 마지막 주인 16주 차에 개방형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수업이나 수업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적어달라고 할 경우 너무 광범위한 질문 성향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범위를 좁혀서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써줄 것을 학습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1)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대한 의견
- 2) 모바일 앱(네이버 밴드) 사용에 대한 의견
- 3) 기타 수업 제반에 대한 의견

교수자는 설문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여 학습자들을 이해시킨 후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그에 대한 이유, 좋았던 점이나 좋지 않았던 점과 그에 대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 1. 1차 평가와 2차 평가 결과

본 연구는 공손 표현과 공손 전략에 대해 자각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공손 표현을 얼마나 잘 내재화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취도 평가 형태로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두 집단의 평가 결과는 SPSS 독립표본 t-테스트를 통해 처리되었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 평가 결과

반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평균 차
실험반	38	24.605	4.703	2.675*	.009	2.849
통제반	41	21.756	4.752			

\*p&lt;.05

1차 평가 결과 실험반의 평균(M=24.605)이 통제반의 평균(M=21.756)에 비해 2.849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9). 이를 통해 팀별 발표 중심의 일반적인 학습보다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공손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 또한 35문항으로 1차 평가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되었으며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테스트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실험반과 통제반의 2차 평가 결과

반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평균 차
실험반	38	25.205	3.846	2.480*	.015	2.690
통제반	41	22.514	5.569			

\*p&lt;.05

2차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반의 평균(M=22.514) 보다는 실험반의 평균(M=25.205)이 2.690점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p=.015). 1차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2차 평가 결과를 통해 모바일 앱,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학습자들의 공손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은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한 과제는 학습 도구의 이용 편의성으로 인해 학습 과제 반복의 효율성이 컸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 2. 개방형 설문지 조사 결과

개방형 설문 조사는 세 범주,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대한 의견, 모바일 앱(네이버 밴드) 사용에 대한 의견, 기타 수업 제반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학습이 공손 영어 표현에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므로 실험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세 가지 문항에 맞게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개방형 설문 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설문 결과는 각 항목별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학습자들의 의견 중 공통적으로 5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의견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공손 영어 표현 학습에 대한 의견

구분	학습자들의 의견
긍정 의견	드라마에 대한 흥미: 공손 표현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 드라마에 대한 재미: 학습 효과 극대화 실용 영어 회화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고급 영어 다양한 어휘의 학습 역할극의 효과: 대사의 수월한 암기 고급스러운 표현의 학습 영어 공손 표현에 대한 자각 회화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가치
부정 의견	실용 영어 학습에 대한 갈증 비즈니스 영어 학습의 필요성 생활 회화의 부족함: 공손 영어에 대한 부담감 역할극: 현대 영어로의 변환 필요 공손 영어의 일상 속 적용성(사용)에 대한 의구심

먼저 많은 학습자들은 공손한 영어 표현을 우아한 표현이나 고급 영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 회화 학습 현장에서는 접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어에는 공손 표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

게 많을 줄 몰랐다는 의견을 통해 공손 언어에 대한 자각은 확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의견과 역할극 활동이 대사의 내재화에 효율적이었다는 의견을 통해 드라마라는 연구 교재와 역할극이라는 연구 활동이 개인에 따라 공손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공손 언어와 실용 언어를 이분화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는 시대극에 대한 학습 요구보다는 현대 영어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용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이나 공손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를 잘 반영한다.

시대극이라고 해서 고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대화 주제에 따라 *Don't talk like that* 대신에 *I wish you wouldn't talk like t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요청할 때도 *Can I go this afternoon to help my father?* 대신에 *I was wondering if I might take some time this afternoon to help my father*을 사용하여 훨씬 공손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청자가 이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미국 영어 학습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생활 회화에 대한 학습 의욕이 높기 때문에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공손 표현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공손 언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학습자들에게 더욱 자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시대극을 활용해서 학습할 경우 현대 영어와의 접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학습에 대한 의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모바일 앱(네이버 밴드) 사용에 대한 의견

구분	학습자들의 의견
긍정 의견	팀플의 불편함(별도의 미팅, 시간 조정)을 모바일로 해결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의 신기함 장소(인천) 이동 중 사용 가능: 학습의 유익성 복습 시 원하는 시간에 사용 가능: 학습자의 자율성 보장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음: 과제 수행의 용이성

구분	학습자들의 의견
긍정 의견	<p>핸드폰을 통한 간단한 위밍업: 내용 이해에 도움</p> <p>핸드폰을 통한 단체방: 다른 학생들과 의견 공유 가능</p> <p>교재 학습에 비해 밴드 방 활용의 유익성</p> <p>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의견 공유를 통해 가능)</p> <p>학기 후 지속적 단체방의 활용</p> <p>방학 중 핸드폰을 통한 학습 자료 업데이트 요청</p>
부정 의견	<p>와이파티의 연결 실패로 인한 불편함</p> <p>핸드폰의 작은 화면: 답답함, 장시간 학습 시 불편함</p> <p>작은 핸드폰 사용: 집중 시 눈의 피로</p> <p>작은 자판 사용에 대한 불편</p> <p>네이버 밴드 활동 참여에 대한 압박감</p>

네이버 밴드라는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대체적으로 모바일 사용의 이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팀플보다는 시간 절약의 효과가 있다는 점, 학습자가 원할 때마다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반복 학습의 기능과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과제 수행의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만족스러운 의견으로 빈도수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통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거나 네이버 밴드 탈퇴를 원치 않으며 또는 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요구 등은 모바일 앱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전반적으로 모바일 사용의 단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의 단절, 화면의 작은 크기와 영어 자판의 불편함, 그로 인한 눈의 피로도나 심리적 답답함 등이 빈도수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바일을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기기의 단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을 학습 도구로 사용할 경우는 과제의 길이나 참여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작은 기기로 인해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강의 자료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기타 수업 전반에 걸친 개별적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기타 수업 제반에 대한 의견

구분	학습자들의 의견
긍정 의견	드라마에 대한 재미. 시즌 6 시청 예정 내용 전개에 대한 흥미: 메리와 매튜의 결혼 드라마 내용에 대한 높은 만족감 영국 발음과 액센트 학습의 좋은 기회 드라마 속 계층별 의상에 대한 설명 유익(의상디자인학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 TV 영화 채널 상영 중, 시즌 3 시청 같은 장르의 설득 홈즈 학습 요청
부정 의견	에피소드 선택별 학습: 시즌 6까지의 학습 요청 파워포인트의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 마이크 소리 조절 요청 과제 축소 요청 현대극 학습에 대한 요청 딱딱한 수업 시간: 다음 수업을 위한 배려 요청

공손 언어 학습을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수업 전반에 대한 의견 중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드라마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드라마에 대한 흥미, 영국식 발음이나 액센트에 대한 만족감, 언어 외적 요소에 대한 관심, 비슷한 장르를 이용한 학습 지속 가능성 등이 긍정 의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다운튼 애버러*는 드라마가 제공할 수 있는 특색들이라 판단된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수업 도구에 대한 불만이나 수업 시간이나 과제의 양 조절 등이 나왔으며 이는 특별히 본 수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반 수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의견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공손 영어 표현 학습의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바일 앱으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법 형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합한 표현도 구사할 줄 알아

야 한다.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또는 친밀도가 낮을수록 한국인 화자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영어는 존대 체계를 언어적으로 갖추고 있는 우리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손 영어 표현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영어 공손 표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발화로 상대방의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손 언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공손 언어의 기능(장은숙 & 윤용진, 2012; Hahn, 2009)이나 다른 문화권에서의 공손성(한천영, 2008), 문화마다 다른 공손성의 실현 양상(김현효, 2015; Kiyomi & Etsuko, 2012)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손 언어의 특징이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교실 현장에서 공손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손 언어 학습을 위해 이용 편의성이 매우 높은 모바일 앱을 학습에 접목하였다. 대부분의 많은 대학생들은 모바일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떤 세대보다도 모바일을 학습도구로 편리하게 사용할 줄 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공손 언어학습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찰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실험반과 일반적인 팀별 학습을 중심으로 한 통제반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앱이 공손 영어 표현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후 활동으로 모바일 앱의 활용이 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공손 언어를 우아하거나 고급스러운 언어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영어의 공손 언어 학습과 생활 회화를 이분화하여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교수자는 시대극을 활용한 공손 언어 교수 시 현대 영어와의 접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이용의 편의성, 시간 절약 효과, 반복 학습의 기능과 과제 수행 시 시간 조절 가능 등의 의견이 있었다. 모바일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통신 단절의 불편, 화면의 작은 크기, 영어 자판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눈의 피로 등이 있었다. 이것은 모바일 앱 사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컴퓨터 홈페이지 강의 자료실 동시 운영이나 과제

의 양 조절 등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손 언어 학습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 학습 교재를 귀족들의 삶을 다룸으로써 공손한 언어가 산재해있는 드라마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현대영어와의 접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현대적 영화나 드라마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공손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네이버 밴드 이외의 다양한 다른 모바일 앱을 활용하였을 경우에도 공손 언어 학습의 효율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지 심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현효, 「한국어와 영어 성별어 비교 연구: 공손 표현과 관련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권 10호, 2015.
- 장은숙, 윤웅진, 「공손성을 고려한 초등영어교육과정 구성 및 지도방안」, 『초등영어교육』 18권 3호, 2012.
- 조세경,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2권 3호, 2009.
- 한천영, 「현대 영어 담화에서의 정중성」, 『Comparative Korean Studies』 16권 2호, 2008.
- Agca, Kagan Ridvan, and Özdemir, Selçuk, “Foreign Language Vocabulary Learning with Mobile Technolog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3, 2013.
- Azar, Sorayyaei Ali, and Nasiri, Hassan, “Learners’ Attitudes Toward the Effectiveness of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MALL) in L2 Listening Comprehens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8, 2014.
- Bou-Franch, Patricia, and Garcēs-Conejos, Pilar, “Teaching Linguistic Politeness: A Methodological Proposal,” *IRAL* 41, 2003.

- Brown, Penelope, "Linguistic Politeness," *Socio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Science of Language and Society*, ed. by Ulrich Ammon, Norbert Dittmar, Klaus J. Mattheier and Peter Trudgill, New York, NY: Walter de Gruyter, 2005.
- Byon, Sangpil Andrew, "Teaching the Polite and the Deferential Speech Levels Using Media Materials: Advanced KFL Classroom Settings," *Papers from Pragmatics in the CJK Classroom: The State of the Art*, ed. by Dina R. Yoshimi and Haidan Wang, Honolulu, Hawaii: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2007.
- Chen, Chih-Ming, and Hsu, Shin-Hsun, "Personalized Intelligent Mobile Learning System for Supporting Effective English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1.3, 2008.
- El-Hussein, Osman Mohamed, and Cronje, Johannes, "Defining Mobile Learning in the Higher Education Landscape,"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3.3, 2010.
- Godwin-Johns, Robert, "Emerging Technologies: Mobile Applications for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5.2, 2011.
- Hann, Jee-Won, "Learning Speech Acts and Politeness Strategies Through EFL Textbooks in Korea," *Eonehag* 57, 2010.
- \_\_\_\_\_, "I Want to Skip Your Class: Being Polite in Korean Interlanguage Requests," *Linguistic Research* 26.3, 2009.
- Hoven, Debra, and Palalas, Agnieszka, "(Re)conceptualizing Design Approaches for Mobile Language Learning," *CALICO Journal* 28.3, 2011.
- Hsu, Liwei,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Perception of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 A Cross-national Study,"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6.3, 2013.
- Jana, Švárová, *Politeness Markers in Spoke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saryk University, Brno, Czech, 2008.
- Kim, Hea-Suk, "Effects of SMS Text Messaging on Vocabulary Learn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4.2, 2011.
- \_\_\_\_\_, "Emerging Mobile Apps to Improve English Listening Skill,"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6.2, 2013.
- \_\_\_\_\_, "Effects of Using Mobile Devices in Blended Learning for English

- Reading Comprehens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7.2, 2014.
- Kiyomi, Fujii, and Etsuko, Inoguchi, “Teaching Politeness: ESL/EFL and JSL/JFL Teachers’ Attitu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17th Conference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012.
- Kukulska-Hulme, Agnes, “Mobile Language Learning Now and in the Future,” *From Vision to Practice: Language Learning and IT*, ed. by Patrick Svensson, Sweden: Swedish Net University, 2006.
- Lakoff, Robin,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 Lin, Chin-Cheng, “Learning English Reading in a Mobile-assisted Extensive Reading Program,” *Computers & Education* 78, 2014.
- Lu, Minhui Marina, “Effectiveness of Vocabulary Learning via Mobile Phon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4.6, 2008.
- Norbrook, Hamish, and Scott, Paul, “Motivation in Mobile Modern Foreign Language Learning,” *MLEARN 2003: Learning with Mobile Devices*, ed. by Jill Attewell, Giorgio Da Bormida, Mike Sharples and Carol Savill-Smith, London: Learning and Skills Development Agency, 2003.
- Maha, Louni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Linguistic Politenes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10.1, 2014.
- O’sullivan, Wilma, “A Study on Politeness Teaching to English Learners in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23, 2008.
- Sandberg, Jacobijn, Maris, Marinus, and GEUS, Kaspar, “Mobile English Learning: An Evidence-based Study with Fifth Graders,” *Computers & Education* 57, 2011.
- Stockwell, Glenn, “Using Mobile Phones for Vocabulary Activities: Examining the Effect of the Platform,”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4.2, 2010.
- Yang, Sungshim, “Analysis and Evaluation of ELT Smartphone Application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8.1, 2012.

❖ ABSTRACT

## A Study on the Learning of Polite Expressions Using M-learning

Kim, Hye Jeo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earning polite expressions of English using the mobile application Naver Band.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e, students need to develop sociolinguistic competence as well as grammatical and discourse competence. To be accordant to social context, the role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purpose of the interaction, students have to make an appropriate utterance. When a hearer has a higher social status and is older than a speaker, or have low levels of familiarity, Korean native speaker tends to use polite expressions. Students need to learn polite expressions of English because English has a different honorific system from Korean. To realiz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polite language is one thing, but to learn it in a real classroom is another.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the use of a mobile application, which is considered a user-friendly tool for students, into learning polite language using the UK historical drama, *Downton Abbey*. Two tests were administered to an experimental group that used the mobile application and a control group that used group work. The results of the two tests show that the use of the mobile appl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polite expressions and is effective as an after-school activity. In an open-ended questionnaire, students tend to identify polite expressions as superior or high-level language forms and separate these forms from practical expressions. It should be noted as well that teachers need to consider instructing in modern English when using a historical drama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olite expressions.

---

### Key Words

M-learning, polite expression, mobile application, polite language, historical drama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01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